

항공교통본부 가족 여러분!

지난 2년여 간 지속되어온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인내와 헌신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검은호랑이의 기운으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들 일상에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본부는 지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초 계획한 바를 차근차근 이행하여 계획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최대 화두였던 제주남단 항공회랑을 성공적으로 인수하여 현재까지 약 9만 여대의 교통량을 처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단 한 건의 항공안전장애도 없이 완벽한 항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항공회랑 운영준비를 주도해온 전담반 관계자와 현장에서 흐름관리와 관제업무를 수행한 실무자는 물론, 안전관리와 항행안전시설 보강에 힘써온 모든 관계자들의 협업과 노고로 얻은 값진 성과입니다.

둘째, 조건부항공로 신설과 단축비행로 추가 발굴 등 탄력적 공역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여행시간을 줄이고 약 7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 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의 이러한 노력은 국토교통부 우수 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성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팬데믹 악화상황에도 여러 곳에 산재한 우리본부 관할시설을 중단 없이 운영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기관의 비상대응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유사시에 대비한 주기적 훈련은 물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온 직원 여러분과 가족의 헌신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직원여러분!

2022년은 우리본부 출범 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간 신생조직의 정착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전 직원의 노력덕분에 안정화는 물론 기관의 위상도 높아지는 등 미래의 발전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합니다.

지난 4년간 다져온 우리의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2년이 우리기관의 비전인 '글로벌 명품 항공교통기관'으로 도약하는 실질적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제주남부 항공회랑의 운영체제 고도화 추진입니다.

항공회랑 관제권의 우리나라 환수는 단순한 안전강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협상을 통한 국가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은 자국편의를 우선하여 '고도배정 체계(FLAS)' 정비 등 후속 실무절차를 마무리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해당구역 항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본부는 안전관리에 지장 없도록 '항공회랑 고도배정체제' 해제를 위한 단계별 이행로드맵 수립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남단의 항공로는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은 지역인 만큼 완벽한 우리의 안전관리 역량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단축항공로를 적극 활용하고, 실효적 흐름관리로 우리의 고객인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軍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한된 국가공역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성과기반 흐름관리로 비행지연을 최소화하여 국민편익 향상은 물론 교통량 회복에도 대비해야겠습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예방적 안전관리와 항행안전 시설의 완벽한 유지관리,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한 직원의 업무기량 유지는 선행요건입니다.

셋째, 미래지향적 항공안전관리체제 구축입니다.

항공교통 분야에 AI 등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우리본부 보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시스템과 제도에 접목하는 미래지향적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각 담당분야별로 적용 가능한 시스템과 제도를 검토하고 예산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현안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해 외부의 영향을 받은 「제주남단 항공로레이더 장비실 및 부대시설 사업」의 진척관리는 물론 많은 직원의 관심 사안인 대구·인천 간 인사교류 문제 등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직원여러분!

지난해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단 한건의 사고 없이 맡은바 책무를 수행해 온 여러분의 역량과 열정에서 '위기에 강한조직, 항공교통본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입니다.

항공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항공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글로벌 명품 항공교통기관으로 도약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3일
항공교통본부장 장만희